

# 이야기의 단기적 이용이 타인초점 주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 of Short-term Use of Story on Other-focused Attention

안도현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Dohyun Ahn(dahn@jejunu.ac.kr)

### 요약

이 연구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관계 이해능력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소설과 영화의 단기적인 이용이 타인초점 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참가자 74명을 2개의 처치집단(소설, 영화)과 대조집단(설명문) 등 3개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해 약 30분 정도 자극물에 노출한 뒤, 세 집단의 주의초점(자신 대 타인)의 방향을 비교했다. 내용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설명문은 소설의 줄거리가 요약된 평론을 이용했다. 분석결과 이야기에 접한 처치집단(소설과 영화)은 대조집단(설명문)에 비해 유의미하게 주의초점 방향을 타인에 향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관계 이해능력 사이에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는 불분명했었는데, 이 연구는 이야기를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통해 타인초점의 주의방향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야기를 통한 사회관계의 체험이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야기의 모의실험론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중심어 : | 이야기 | 소설 | 영화 | 모의실험 | 타인초점 주의 | 사회인지 |

### Abstract

To examine the causal association between story usage and the ability of comprehending social relation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short-term use of story heightened the degree of other-focused attention. To this end, this study randomly assigned 74 participants into three groups(novel, film, and exposition conditions), and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the stimuli for about 30 minutes, and then this study compared the degree of other-focused attention of the three group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degree of other-focused attention in the story groups (novel and film)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exposition group. Though causal association between story usage and the ability of comprehending social relations were not clear, via demonstrating the formation of other-focused attention due to short-term use of story,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for the simulation account of story.

■ keyword: | Story | Novel | Film | Simulation | Other-focused Attention | Social Cognition |

## I. 서론

우리의 삶에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으나,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다. 결말은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차지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7131)

접수일자 : 2017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1월 27일

수정일자 : 2017년 11월 27일

교신저자 : 안도현, e-mail : dahn@jejunu.ac.kr

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예술과 통속을 불문하고 이야기에선 살인, 폭행, 사기, 간음 등 부도덕한 내용이 많다. 부정적 내용이 주를 이루는 이야기에 긍정적인 기능은 무엇일까?

부정적 내용을 지닌 이야기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야기를 사회관계에 대한 체험으로 파악하는 사회관계 모의실행(simulation)이다. 모의실행은 실제로 겪어보는 너무나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가상의 체험으로서 실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1]. 아이들의 놀이는 대표적인 모의실행으로서, 거친 신체 놀이(rough-and-tumble play)는 사냥이나 전투, 대상 놀이(object play)는 사물의 조작, 그리고 가장놀이(pretend play)는 사회관계에 대한 적응력을 익히는 일종의 학습의 역할을 한다[2]. 소설과 같은 이야기는 가장놀이가 보다 정교하게 확장된 형태로서 사회관계의 모의실행이다[3].

모의실행론에 따르면 이야기는 다양한 사회관계를 체험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의 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설 등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접할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다 잘 이해하는 능력 즉 사회인지 능력도 비례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나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향상 사이의 관계가 인과적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설문연구에서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만 실험연구에서는 연구결과가 엇갈린다[5][6].

기존 연구에서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에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인지 능력의 지표가 단기간에 향상될 만큼 유연하지 않은 지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보다 유연한 사회인지의 지표인 주의 초점의 방향(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주의의 방향)을 측정해,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관계의 모의실행으로서의 이야기에 대해 개념화하고, 이야기와 주의초점 방향의 관계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문헌 연구

### 1.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야기는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야기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알려 주는 말” 혹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등[7]으로 구분한다. 이야기를 “경험이나 생각을 남에게 알려 주는 말”로 본다면, 이는 광의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일상에서 말하고 대화하는 대부분의 발화행위로서 특정한 맥락으로 묶일 수 있는 다양한 양식의 언술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8][9].

이야기를 “줄거리를 가지는 말과 글”로 국한한다면, 이 연구에서 다루는 협의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과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사건[10] 혹은 시공간의 틀에서 사건의 진행을 재구성한 언술들의 집합[8][9]이라고 한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이야기의 핵심요소는 사건이다. 이야기 속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실제의 사건과 행위를 그대로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체험을 ‘마치 그러했던 것처럼’ 허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11]. 따라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의 허구성은 사전적 의미의 허구성(사실에서 벗어난 특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12]. 이를 위해서는 허구성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사고양식에 대해 살펴 봐야 한다. 인간의 사고양식을 둘로 구분하는 다양한 이중처리 이론이 있는데[13], 그 중 하나가 사고양식을 논리적 사고양식과 체험적 사고양식으로 구분하는 접근이다[14]. 논리적 사고양식을 패러다임 사고양식, 체험적 사고양식은 내러티브 사고양식이라고도 한다. 논리적 사고양식이란 사건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등에 대해 논리적인 틀로 기술하는 양식이다. 반면, 체험적 사고양식은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인간 혹은 인간과 같은 의도를 지닌 존재)들 사이의 있을 법한(verisimilitude) 사회적 관계와 행동을 체험의 틀로 제시하는 사고양식

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기술한다고 할 때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인 틀로 체계적으로 기술한 역사논문은 논리적 사고양식의 구현이다. 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그 사건에 관여한 행위자들 사이에 있었음직한 사회적 관계와 행동을 체험의 틀로 기술한 역사소설은 체험적 사고양식의 구현이다. 달리 말해, 사건의 발생과 전개 등 논리적 인과성에 초점을 둔다면 논리적 사고양식의 설명문이 되고,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체험적 사고양식의 이야기가 된다. 결국 이야기 허구성의 본질은 ‘사실에서 벗어난다’ 혹은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혹은 있을 법한 사실과 관련한 행위자의 관계를 체험의 틀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이라 해도 논리적 혹은 체험적 접근에 따라 설명문 혹은 이야기가 된다면, 이야기의 핵심요소는 사건 자체라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 즉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 사이의 사회관계 혹은 사건 및 관련 행위를 야기하는 행위자와 이들의 사회관계가 이야기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15][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특정한 시공간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해 체험의 틀로 제시하는 언술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 2. 모의실행의 기능

비록 이야기가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기반한 설명문보다 더 현실성(reality)이 높다. 현실성은 사실에 기반한 경험적(empirical) 현실성, 그럴싸함에 기반한 정합적(coherent) 현실성, 그리고 감정적 몰입에 기반한 개인적 현실성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야기 속 사건은 사실이 아니나, 이야기 속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해결 등의 사회관계는 실제의 사회관계 양상과 다르지 않다(정합적 현실성). 또한 그럴싸한 사회관계를 통해 겪는 감정은 이야기 이용자 자신이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개인적 현실성). 이야기는 정합적 현실성과 개인적 현실성 등 2종류의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설명문은 사실에 기반

한 경험적 현실성 단 한 종류의 현실성만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야기가 오히려 설명문보다 2배가 현실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도 있다[17]. 이러한 이야기의 현실적인 특성 때문에 비록 이야기의 내용이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수용자가 이야기 속 가상의 사회관계를 실제인양 체험할 수 있는 사회관계의 모의실행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3][18].

모의실행의 기능은 크게 정보로서의 기능과 이해로서의 기능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5]. 정보로서의 기능이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 모형을 구성해 모의실행 함으로써 그 대상의 작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 시간은 직접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함에도 시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시계라는 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시계는 시간을 모의로 실행해 보는 도구로서 지구, 태양, 별 등의 움직임을 단순화한 모형이다. 모의실행의 이해로서의 기능이란 복잡한 현상을 모의로 실행해 봄으로써 그 원리를 파악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날씨는 다기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유력한 변수를 모두 투입해 날씨의 변화를 모의로 실행해 다양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16].

이야기는 사회관계에 대한 모의실행으로서 사회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관계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마음 속에 품은 생각, 느낌, 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모형을 구성해 그 마음 상태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욕망(desire) 등의 마음상태에 대한 정신모형(mental model)을 통해 추론하는 마음의 작용을 마음이론(theory of mind)이라 하며, 지향적 자세(intentional stance), 마음읽기(mind-reading), 정신화(mentalizing), 통속심리(folk psychology)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19-21].

사회관계도 날씨만큼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다. 사회관계의 복잡성은 지향성 수준으

로 나타나는 마음이론의 위계성을 통해 잘 드러낸다. 지향성(intentionality)이란 의도, 신념, 요망 등의 마음 상태를 일컫는 용어다. 1차 지향성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예: A는 X를 안다)을 말한다. 2차 지향성은 타인의 마음상태에 대해 가늠하는 능력(예: B가 X를 안다고 A는 생각한다)이다. 이 위계는 자연스럽게 3차, 4차, 5차 등으로 복잡성이 높아진다(예: B가 X를 안다고 A는 생각한다고 B가 짐작한다고 A가 추측하는 것을 B가 이해하고 있다). 마음이론은 2차 이상의 지향성을 지닌 마음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22]. 사회관계는 지향성을 근간으로 하기에 대단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모의실험은 다양한 사회적 존재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모의로 실험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 3. 주의초점에 대한 영향

이야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접근 가능하다. 하나는 이야기 내용의 언어적 의미가 미치는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의 체험이 미치는 영향이다. 이야기 내용의 언어적 의미가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이야기의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살인, 혼외정사, 배신 등 이야기의 소재가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사회관계의 모의실험을 통한 체험이라고 본다면 이야기의 영향이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관계의 모의실험은 사회관계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만일 이야기가 사회관계를 실제인양 체험하는 모의 실험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사회관계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협력과 배신 등 이야기 속 사회관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마음 상태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는 과정은 이야기의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를 이해해 보는 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3][23] 상관성도 일관되게 나타나지만[4][24], 인과성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능력의 지표로서 감정제인 능력(눈매만 나온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인물의 감정을 추론하는 과제(RMET: Reading the minds in the eyes test)[25])을 이용해 실험했으나,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단지 30분 이내 분량의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회인지 능력이 향상됐다는 연구가 있지만[5], 유사한 절차와 자극물을 이용해 재현을 시도한 연구에서는 소설을 읽은 집단과 설명문을 읽은 집단 사이에 사회인지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6].

이야기 이용과 사회관계 이해 능력 사이의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이야기와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관계는 아마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일 수 있다. 둘째, 이야기가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그 현상을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 연구는 둘째 가능성에 주목한다. 설문연구에서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이 일관되게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논리적으로도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의 관계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사회인지 능력의 지표로 사용한 감정제인 능력이 이야기의 이용을 통해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겠지만, 30분 이내의 시간에 향상되기에는 충분하게 유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설문연구에서 이야기의 이용과 감정제인능력 사이에 상관성이 나타났던 것은 이야기의 이용을 장기적으로 소설을 꾸준히 읽는 정도로 측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2][2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인지 능력 지표를 이용해 이야기의 단기적 이용이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 탐구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이야기의 단기이용이 감정제인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회인지 능력은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한 주의초점의

방향을 통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초점을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기울일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주의초점 방향은 감정재인능력 보다 더 유연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관계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사회인지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주의 초점의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개체로서의 자아와 집단으로서의 자아 등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개체로서의 자아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이며, 집단으로서의 자아는 타인중심적인 자아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극단으로 추구하기보다 두 종류의 자아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을 추구한다[26]. 즉,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특성과 타인중심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느 하나가 더 혹은 덜 강조된다.

개체로서의 자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단으로서의 자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타인” 혹은 “우리”에 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실제로 유명인이 되기 전과 된 후의 언어 사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명인이 된 이후에 “나”와 같은 자기초점 주의를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이 증가했다[27].

주의를 타인에 기울이지 못해 자기초점 주의가 과도해질 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많다. 자기초점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 과도한 자기초점은 일관되게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자기초점 주의를 정신건강 뿐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명인이 되면 과도하게 자기초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명성을 얻기 전에 비해 자기초점적인 어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27]. 시인의 사용언어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시인의 시에서 자살로 마감하지 않은 시인의 시에 비해 자기초점

어휘가 많이 사용됐다[29].

이야기의 이용은 작가가 설정한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줄거리를 따라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등장인물 및 작가와 주의를 공유해야 한다. 주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의 초점의 방향을 내면(자신)과 외부 환경(타인)에 대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를 공유하는 행동은 행위자들 사이에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시선을 주는 대상(예: 얼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상태(예: 우호적 vs. 적대적)를 추론해 이해하는 행동이다.

등장인물 및 작가와 주의를 공유해야 하는 이야기의 이용 상황은 개체로서의 자아보다는 집단으로서의 자아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야기의 이용은 “나 자신”이 세상을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설정한 세상에서 등장인물과 함께 세상을 체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이용은 타인초점 주의가 향상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연구가설: 이야기의 이용자는 설명문 이용자에 비해 타인초점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개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능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연구를 했다. 연구참여자를 처치 집단(소설과 영화)과 대조집단(설명문)으로 구분해 집단 간 주의초점 방향과 감정재인 능력을 비교했다. 이야기 자극물에 대한 비교를 보다 분명하게하기 위해 대조집단에는 자극물로 제시한 소설의 내용을 요약한 설명문을 이용했다. 또한 문자와 영상 양식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문자양식 이야기(소설)외에 영상 양식 이야기(영화)도 함께 이용했다.

개인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주의초점과 사회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감성향과 체계화 성향을 통

제변수로 투입했다. 또한 제시된 자극물에 대한 이용 정도를 통제하기 위해 자극물에 대한 평가도 통제변수로 투입했다. 이와 함께 성, 나이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도 통제변수로 투입했다.

## 2. 연구참여자 및 연구절차

대학생 74명(남성 = 32명, 여성 = 42명)을 소설집단, 영화집단 및 설문문 집단으로 무작위로 할당했다. 총 146명을 모집했는데, 연구에 등록만 하고 실험 당일 나타나지 않은 12명, 설문문항을 읽고 응답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읽지 않고 응답했다고 답한 8명, 내용 요약과 제에서 한 단어 이하로 기술한 2명 및 실험 진행 중에 다른 수업 참여 등의 이유로 이탈한 25명 등을 제외한 최종 연구참여 인원 99명 중 이 연구와 관계없는 실험 조건에 투입한 25명을 제외한 74명을 최종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2.41세이고 표준편차는 3.35이다. 연구참여에 대해 3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했다.

실험은 대학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연구참여자는 지정된 강의실에 도착해 먼저 공감성향 등 개인차이에 대한 설문문항에 답했다. 이후 자극물을 보았다. 자극물 노출이 완료된 후 다시 설문지를 배포해 주의초점방향과 감정제인 능력 및 자극물 이용에 관련된 통제변수를 측정했다. 최종적으로 성, 나이 등 인구통계변수를 수집했다. 설문 마지막 부분에서 설문 문항을 읽고 답했는지의 여부에 답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읽고 해산했다.

## 3. 자극물

기존 연구[5]에서 작품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작품성이 높은 소설과 영화를 선택했다. 소설은 국내 대표적인 단편 소설 작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선택했다. 대조집단에 사용한 설명문은 처치집단의 소설과 유사한 내용을 이용했다. 소설과 설명문의 내용의 차이에서는 오는 요소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요약이 담긴 평론을 제시했다. 평론에는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내용의 요약 및 문학적 의의가 논리적으로 기술돼 있다. 30분 정도에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 영화는 푸리처상 수상 소설 <세월>을 원작으로 한 <디 아워스(The Hours)>를 이용했다. <디 아워스>는 세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주인공 아들의 비극적 이야기를 다룬 부분만 30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했다.

## 4. 측정도구

측정 도구는 통제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구성돼 있다. 통제변수는 인지공감 및 체계화 성향, 인구통계 등 개인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자극물로 제시된 이야기와 설명문에 대한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측정했다. 설문 문항 사이에 이 연구와 관계없는 측정도구를 삽입해 앞의 설문내용이 이후의 설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였다.

### 4.1 주의 초점

주의의 초점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지 타인에게 향하고 있는지의 주의초점 방향은 참가자들이 자극물 노출 직후 자극물에 대한 요약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감을 기록하라고 한 뒤, 그 소감문에 사용한 단어를 분석해 측정했다. 소감문에서 자기중심적 단어(예: 나)와 타인 중심적 단어(예: 그, 우리) 사용의 빈도를 계산했다[23]. 대명사의 사용은 주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지 혹은 타인에 대한 것인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31]. '나'와 같은 일인칭 단수 대명사는 집단이나 타인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해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자기에 대한 초점을 품고, '그' 혹은 '우리'와 같은 대명사는 타인에 대해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타인에 대한 초점을 품고 있다[32]. 사용한 단어의 빈도는 사용 단어 총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대적 빈도를 구했다. 타인중심적 단어와 자기중심적 단어의 사용량을 각각 단어 사용 총량으로 나눴다. 이 값을 토대로 타인중심적인 단어를 자기중심적인 단어로 나뉜 타인중심적인 단어의 상대적인 빈도를 계산해 타인에 대한 주의초점의 변수로 이용했다. 즉, 1이면 주의초점이 타인 혹은 자신에 대한 주의초점이 동일한 것이고, 1보다 크면 타인초점 주의, 1보다 작으면 자기초점 주의를 나타낸다.

#### 4.2 감정재인 능력

감정재인 능력 향상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 [4-6, 33]에서 이용한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를 이용했다[25]. 36개의 얼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사진은 눈 주변의 얼굴만을 제시한다. 눈 주변의 표정만으로 사진에 제시된 사람의 감정상태를 추론하는 과제다. 이 연구에서는 한 페이지에 한 명의 얼굴이 제시된 소책자(A4의 1/4 크기)를 이용했다.

#### 4.3 인지공감과 체계화 성향

인지공감 성향과 체계화 성향의 측정은 공감화 지수(EQ: Empathizing Quotient)와 체계화 지수(Systemizing Quotient) 척도[34]를 이용했다. EQ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성향(예: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다”)을 측정하는 척도다. SQ는 EQ와 대조적인 측면으로서 사물의 규칙성이나 원리에 초점을 두는 성향(예: “내가 자동차를 산다면 엔진의 성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을 측정하는 척도다. EQ와 SQ 모두 40개 검사문항과 20개의 가짜(filler)문항으로 이뤄졌다. 원 척도의 측정문항이 너무 많아 설문 응답과정의 인지부하를 줄일 필요성이 있어, 모든 문항을 이용하지 않고 문항의 절반 정도만 선택했다. 박은혜 등[35]이 번역한 한글판에서 EQ문항 13개, SQ문항 12개를 이용했다. 최종적인 문항은 와카바야시 등[34]이 개발한 단축 척도에서 요인 적재 값이 높은 것들로 구성했다. 7점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6 = 전적으로 그렇다)로 측정했고,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EQ가 .74, SQ가 .84였다.

#### 4.4 자극물 관련 통제변수

자극물에 대한 노출정도를 통제하기 위해 자극물 노출 직후 그 내용을 자유롭게 요약하도록 했다. 요약한 내용이 없으면 자극물에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요약문에 사용한 명사와 용언 등 주요 단어의 개수를 측정, 기술문장이 한 단어 이하인 연구참여자는 분석에서 배제했다.

자극물에 대한 평가도 자극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기 있기 때문에 4개 문항을 이용해 자극물에 대한 평가(예:

“\_\_\_은 잘 만들었다”)를 측정했다. 7점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6 = 전적으로 그렇다) 측정했고,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76였다.

#### 4.5 인구통계 변수

기타 개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성(0 = 남성, 1 = 여성)과 나이를 측정했다. 또한 자극물에 대한 사전노출 여부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제시된 자극물을 이전에 이용한 경험(0 = 있다, 1 = 없다)에 대해서도 측정했다.

## IV. 분석결과

### 1. 기술 분석

분석 전 다중대치법(multiple imputation)으로 결측값을 제거했다. 다중대치법은 가상의 결측값을 지정한 후 깃스 샘플링 등을 반복적 계산, 최적의 대치값을 찾는 방식이다. 계산에는 R(3.3.1)의 mice패키지를 이용했다[36]. 이하 모든 분석은 R(3.3.1)을 이용했다. 주요변수의 분포는 정규성의 전제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왜도는 절대값이 1.4 미만이였다. 나이의 왜도는 3.35이나 통제변수로 투입했기 때문에 분포정규화는 하지 않았다.

주의초점(타인중심 단어 사용빈도/자기중심 단어 사용빈도)의 평균은 1.06, 표준편차 0.07이였다. 타인중심 단어의 사용빈도가 자기중심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주의초점과 대부분의 다른 주요 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에 따른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t(72) = -0.9, p = .40$ .

RMET를 통해 측정한 감정재인 능력은 평균 24.81, 표준편차 3.63이였다. 눈매 사진 36개에서 감정을 맞춘 과제이므로 총점 36점이다. 이 점수는 기존 연구의 참여자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배론-코헨 등[25]의 연구에서는 참여 대학생의 평균 28, 표준편차 3.5였고, 일반인은 평균 26.2, 표준편차 3.6이였다. 성에 따른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t(72) = -2.0, p = .10$ .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정리했다.

표 1. 타인초점, 감정재인 등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1. 나이	1					
2. EQ	-0.01	1				
3. SQ	0.25 *	0.03	1			
4. 평가	-0.06	0.26 *	0	1		
5. 타인초점	0.09	0.03	-0.1	0.1	1	
6. 감정재인	0.14	0.31 **	0.1	0.12	0.06	1
평균	22.41	3.98	3.72	3.49	1.06	24.81
표준편차	3.35	0.87	1.02	1.07	0.07	3.63

주: N = 74

\* p < .05. \*\* p < .01. \*\*\* p < .001.

## 2. 본 분석

이야기의 이용이 주의초점의 방향과 감정재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소설, 영화 및 설명문집단으로 구분해 공변량분석(ANCOVA)했다. 감정재인 능력과 상관성이 있는 나이와 공감성향을 공변인으로 투입했다. 분석 전 진단도표를 그려 본 결과 변량분석의 전제(이분산, 정규성, 이상치 부재)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 연구문제: 이야기의 단기이용이 감정재인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감정재인 능력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71) = .42, \eta^2 = .01, p = .66$ . 투키사후 검정에서도 3개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키드와 카스타노 연구[4]의 재현에 실패한 파네로 등[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2.2 연구가설: 이야기의 이용자는 설명문 이용자에 비해 타인초점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다.

주의초점 방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71) = 11.63, \eta^2 = 24.96, p < 0.000$ . 투키사후검정 결과 소설 집단(평균 = 1.08, 표준편차 = .06)과 영화집단(평균 = 1.08, 표준편차 = .08)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95% 신뢰구간[0.04, 0.05],  $p = .98$ ). 설명문 집단(평균 = 1.00, 표준편차 = .05)에 비해 소설집단(평균 = 1.08, 표준편차 = .06)이 유의미하게 타인초점 주의를 높였고 (95% 신뢰구간[0.03, 0.12],  $p < 000$ ), 영화집단(평균 = 1.08, 표준편차 = .08)도 유의미하게 타인초점 주의를

높였다 (95% 신뢰구간[0.04, 0.16],  $p < 000$ ). 따라서 이 이야기의 이용이 타인초점 주위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이 지지됐다. 자세한 통계치는 [표 2]와 [표 3]에 정리했다.

표 2. 이야기 이용에 따른 타인초점 주의 공변량분석

변산원	df	F	$\eta^2$	p
나이	1	0.11	0.00	.74
EQ	1	0.01	0.01	.92
조건	1	11.63	24.9	.000
집단내 오차	69	(0.29)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조건은 설명문, 소설, 및 영화 이용집단

표 3. 조건별 타인초점과 감정재인 능력(RMET)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건	타인초점		감정재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설명문 (n = 21)	1.00ab	0.05	24.6	4.14
소설 (n = 26)	1.08a	0.06	25.3	3.1
영화 (n = 27)	1.08b	0.08	24.5	3.77

주: 세로 방향으로 같은 알파벳이 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타인초점은 1보다 크면 타인 중심적 단어 사용빈도가 자기중심적 단어 사용빈도보다 높음.

## V. 논의

이 연구는 그동안 이야기 연구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까지 이야기 연구는 주로 내용의 의미에 초점을 두었지 내용의 제시 양식의 차이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37-39].

이 연구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인



과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이야기의 단기적 이용이 타인초점 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참여자를 무작위로 배치해, 이야기의 대표적인 양식인 소설과 영화를 보도록 한 집단과 자극물로 사용한 소설의 줄거리를 포함한 설명문을 읽도록 한 집단으로 구분해 주의초점의 방향과 감정제인 능력을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 이야기 집단(소설과 영화)이 설명문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타인초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야기를 통해 사회관계를 체험함으로써 사회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이야기의 모의실험론과 일치하는 결과다.

이 연구는 또한 문자 양식과 영상 양식의 미디어가 사회경험의 모의체험이란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야기 양식을 문자 양식(소설)과 영상 양식(영화)의 이야기를 함께 제시했는데, 소설집단과 영화집단은 설명문집단과는 주의 초점의 방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소설집단과 영화집단 사이에 주의 초점의 방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설이 정보 전달 양식이 문자에 국한돼 있고, 영화는 음성과 영상 등 정보 전달 양식이 다중적이어도 이야기적인 특성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이야기를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만 이용해도 사회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야기와 사회인지 능력 사이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능력에 대한 보다 유연한 지표라 할 수 있는 주의초점의 방향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 연구는 동일한 자극물과 절차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야기의 단기적 이용이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5], 다른 한편으로는 이야기와 사회인지 능력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6].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불일치한 결과를 측정방법의 한계라고 파악해 기존 연구의 불일치 요소를 찾아 대안적 결과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감정제인 능력과 보다 유연한 특성인 주의초점

의 방향을 사회인지 능력의 지표로 함께 이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분명하지 않았던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향상 사이의 인과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이야기의 사회관계 모의실험론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한 몇 안 되는 근거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실용적인 의미도 적지 않다. 현 세대가 과도하게 개인주의화하면서 자기에와 같은 성격장애가 증가하는 상황[40]에서, 이야기를 통해 타인초점 주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야기는 오락의 한 종류로서 시간 때우기의 용도 정도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사회관계에 대한 훈련이 될 수 있다면, 이야기의 이용은 단지 시간 때우기나 단순한 오락의 용도가 아니라, 능력 향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 한계가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표본이 대학생이고 수가 작아 연구에 사용한 자극물도 두 종류에 국한돼 있다. 보다 다양한 표본과 자극물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이야기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사회관계의 모의실험으로 그 인과성을 제시한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이야기와 인간 능력 향상 사이의 이해의 지평을 넓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P. Ohler and G. Nieding,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entertainment," in *Psychology of entertainment*, J. Bryant and P. Vorderer, Editors. Erlbaum: Mahwah, NJ. pp.423-433, 2006.
- [2] K. Smith, "Play: Types and functions in human development," in *Origins of the social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child development*, B. J. Ellis and D. F. Bjorklund, Editors. Guilford: New York. pp.271-291, 2005.
- [3] K. Oatley, *Such stuff as dreams: The psychology of fiction*, West Sussex, UK: Wiley, 2011.
- [4] R. A. Mar, K. Oatley, J. Hirsh, J. dela Paz, and J.

- B. Peterson, "Bookworms versus nerds: Exposure to fiction versus non-fiction, divergent associations with social ability, and the simulation of fictional social world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40, No.5, pp.694-712, 2006.
- [5] D. C. Kidd and E. Castano, "Reading literary fiction improves theory of mind," *Science*, Vol.342, No.6156, pp.377-380, 2013.
- [6] M. E. Panero, D. S. Weisberg, J. Black, T. R. Goldstein, J. L. Barnes, H. Brownell, and E. Winner, "Does reading a single passage of literary fiction really improve theory of mind? An attempt at repl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11, No.5, pp.e46-e54, 2016.
-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d., 국립국어원: 서울.
- [8] 김광욱, "스토리텔링의 개념," *겨레어문학*, 제41권, pp.249-276, 2008.
- [9] 박용익, "이야기란 무엇인가?," *텍스트언어학*, 제20권, pp.143-163, 2006.
- [10] A. C. Graesser, K. Hautt-Smith, A. D. Cohen, and L. D. Pyles, "Advanced outlines, familiarity, and text genre on retention of pros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Vol.48, pp.281-290, 1980.
- [11] 박민정,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아시아교육연구*, 제7권, 제4호, pp.27-47, 2006.
- [12] K. Oatley, "On Truth and Fiction," in *Cognitive Literary Science: Dialogues between Literature and Cognition*, M.B.E.T. Troscianko, Editor.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pp.259-278, 2017,
- [13] S. Chaiken and Y. Trope, eds.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Guilford: New York. 1999,
- [14] J. S.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Bost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15] R. A. Mar and K. Oatley, "The function of fiction is the abstraction and simulation of social experi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3, No.3, pp.173-192, 2008.
- [16] K. Oatley and R. A. Mar, "Evolutionary pre-adaptation and the idea of character in fiction," *Journal of Cultural and Evolutionary Psychology*, Vol.3, No.2, pp.179-194, 2005.
- [17] K. Oatley, "Why fiction may be twice as true as fact: Fiction as cognitive and emotional simul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3, pp.101-117, 1999.
- [18] K. Oatley, "A taxonomy of the emotions of literary response and a theory of identification in fictional narrative," *Poetics*, Vol.23, pp.53-74, 1994.
- [19] D. C. Dennett, "Intentional systems,"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68, No.4, pp.87-106, 1971.
- [20] D. Premack and G. Woodruff,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1, No.4, pp.515-526, 1978.
- [21] Z. W. Pylyshyn, "When is attribution of beliefs justified?[P&W],"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1, No.4, pp.592-593, 1978.
- [22] R. Dunbar and S. Shultz, "Evolution in the social brain," *Science*, Vol.317, No.5843, pp.1344-1347, 2007.
- [23] R. A. Mar, "The neuropsychology of narrative: Story comprehension, story production and their interrelation," *Neuropsychologia*, Vol.42, No.10, pp.1414-1434, 2004.
- [24] R. A. Mar, K. Oatley, and J. B. Peterson, "Exploring the link between reading fiction and empathy: Ruling out individual differences and examining outcomes," *Communications*, Vol.34, No.4, pp.407-428, 2009.
- [25] S. Baron-Cohen, S. Wheelwright, J. Hill, Y. Raste, and I. Plumb,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evised version: A study with normal adults, and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2, No.2, pp.241-251, 2001.

- [26] M. B. Brewer,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17, No.5, pp.475-482, 1991.
- [27] M. Schaller,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Fame: Three Tests of the Self Consciousness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Vol.65, No.2, pp.291-309, 1997.
- [28] R. E. Ingram,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Vol.107, No.2, pp.156-176, 1990.
- [29] S. W. Stirman and J. W. Pennebaker, "Word use in the poetry of suicidal and nonsuicidal poets," *Psychosomatic medicine*, Vol.63, No.4, pp.517-522, 2001.
- [30] R. S. Campbell and J. W. Pennebaker, "The secret life of pronouns: Flexibility in writing style and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Science*, Vol.14, No.1, pp.60-65, 2003.
- [31] J. W. Pennebaker and L. A. King, "Linguistic styles: language use as an individual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7, No.6, pp.1296-1312, 1999.
- [32] S. Wechsler, "What 'you' and 'I' mean to each other: Person indexicals, self-ascription, and theory of mind," *Language*, Vol.86, No.2, pp.332-365, 2010.
- [33] J. Black and J. L. Barnes, "Fiction and social cognition: The effect of viewing award-winning television dramas on theory of mind,"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Vol.9, No.4, pp.423-429, 2015.
- [34] A. Wakabayashi, S. Baron-Cohen, S. Wheelwright, N. Goldenfeld, J. Delaney, D. Fine, R. Smith, and L. Weil, "Development of short forms of the Empathy Quotient (EQ-Short) and the Systemizing Quotient (SQ-Shor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1, No.5, pp.929-940, 2006.
- [35] 박은혜, 김혜리, 조정자, 구재선, "성차에 대한 Baron-Cohen 의 공감하기-체계화하기 이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14, No.2, pp.269-286, 2009.
- [36] S. Buuren and K. Groothuis-Oudshoorn, "mice: Multivariat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in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Vol.45, No.3, 2011.
- [37] 마사, 전범수, "중국 유학생의 한국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몰입 결정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111-119, 2012.
- [38] 박은하,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의 이야기구조와 남녀주인공의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48-59, 2014.
- [39] 이문행,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드라마의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167-175, 2011.
- [40] J. M. Twenge and J. D. Foster, "Birth cohort increases in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1982 - 2009,"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Vol.1, No.1, pp.99-106, 2010.

저 자 소 개

안 도 현(Dohyun Ahn)

정화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학사)
- 2006년 5월 : Colorado State University, Dept of Journalism and Technical Communication (M.S.)
- 2009년 12월 : University of Alabama, College of Communication(Ph.D.)
- 2014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심리, 인지과학, 감정심리, 테이 터스토리텔링, 미디어경영, 건강소통